

백신접종 사후관리 '호평'

익산시, 전 공무원·접종완료 어르신 일대일 매칭 관리 접종일부터 3일간 유선 확인... 연락 안되면 세대 방문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철저하고 세심한 사후관리를 지원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백신접종 계획단계에서부터 온라인 예약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백신접종을 위한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우선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와 읍면동 자체 접종지를 오는 45인승 수송버스를 1일 3회 왕복 운행한다.

읍면동 수송버스에는 거리두기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원이 탑승하며, 1대

당 인솔자 3명이 함께 동행하여 접종 대상 어르신의 예진표 작성부터 접종 진행 이상반응 관찰 등 당일 일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접종을 마친 후에도 익산시 전 직원이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현재 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접종일부터 3일간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이 1일 1회 이상 전화하여 이상 반응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가벼운 증상 발생시에는 적절한 처치를 안내한다.



또, 연락이 안되면 어르신의 경우, 곧바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여 읍면동 담당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지난 3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소통간담회'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위한 시의회와 공감대 형성·지원

익산시는 지난 3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화도시 주무부서인 역사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익산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문화도시 조성의 지원조례 발의에 관한 논의와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익산시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함께 하겠다"며 "차질 없는 행정적인 준비와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문화도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조례 제정과 문화도시지원센터 구축, 행정협의회 운영 등 시의회와 행정, 시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활성탄 섬유' 활용 혁신성장 기반 구축

국비 100억원 확보, 특성화기반 섬유업계·경제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활성탄 섬유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향토산업인 섬유업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응모해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143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43억)이 투입되며 활성탄 섬유 생산과 시범분석 등 관련 장비 32종을 도입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활성탄 섬유의 소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하며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섬유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천연섬유를 기반으로 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섬유 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 이어서 방화복, 소방복과 같은 안전보호복과 필터 소재와 같은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이미 구축된 혁신지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추진해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 성장추진 정책 중 하나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선정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섬유산업을 기존의 임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로 고도화·다각화가 가능하도록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 통합사례관리' 지원 호응

군산시의 통합사례관리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노숙인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따뜻한 손길과 관심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삼학동 빈집에서 노숙하는 A씨는 가족 단절돼 제대로 된 의복과 식사를 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 거주지는 생활 쓰레기로 가득하고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의 민원뿐 아니라 당사

자의 위생 상태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A씨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가족관계 단절로 노숙 생활을 하게됐으며 노숙인 시설 입소·병원 입원 등 복지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인 의사 거부로 매번 무산됐다.

최근 MBC 실화탐사대, 시 희망복지지원단 삼학동 행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상담으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으며, 또 한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

원 해결을 위해 A씨가 무단 거주하던 쓰레기로 가득찬 공간에 대해 소유주와 A씨 누나의 동의를 얻어 각종 쓰레기 청소 등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읍면동 맞춤형복지팀·병원 등과 통합사례관리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소의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복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 2021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국 19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로스쿨이 지난 4월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10회 변호사 시험 결과에서 총 42명이 합격해 개원 이래 총 362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게 됐다.

특히 원 패스에 해당하는 초시 합격률은 61%를 보여 전국 25개 로스쿨 중 19위로 매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합격자 중에는 50대 합격자가 2명이나 포함된 가운데 약사 출신 합격자 등 다채로운 경력의 변호사를 배출해 주목을 받았으며, 50대 합격자는 두 학생 모두 로스쿨 재학 시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으로 최상위권 성적을 꾸준히 유지한 끝에 올해 2월 졸업과 함께 곧바로 법조인의 꿈을 이루었다.

또한, 합격자 중 조훈현 변호사는 모교 약대 출신 약사로서 이번에 변호사 자격까지 더해 향후 전문성 있는 법조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올해 합격자들은 재관연 구원 및 장기 군법무관 등 공직으로도 진출해 모교 로스쿨의 위상을 높였다.

김덕중 로스쿨 원장은 "작년에 비해 전체 합격자 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아쉽지만, 초시 합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그 어느 대학보다 나이와 학부전공 등에서 다양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전문성 있는 법조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2022년 4월 입주 예정 오룡동 금광지구 8월 모집

군산시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8월에 모집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오룡동 금광공원 맞은편에 위치하는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총 사업비 198억을 투입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구도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98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사업계획 승인 후 4월에 착공, 내년 4월 입주시기를 맞춰 오는 8월에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세대와 취약노인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 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이번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21㎡(11평) 34호, 29㎡(14평) 30호, 36㎡(17평) 34호로 총 98호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경찰,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순찰 실시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여성청소년과는 경찰을 꿈꾸는 익산 관내 7개교 51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해 '도래지킴이'의 역할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경찰연합동아리인 '청소년드림폴리스'를 출범시켰다.


코로나로 인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위촉장을 전달하고 오리엔테이션 및 교내·외 순찰 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명예경찰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경찰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 강화를 통해 미래 지역공동체 안 협력자로 육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현식 여성청소년 과장은 "청소년드림폴리스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방어자 역할을 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드는 또래지킴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